

Issue Comment

부화뇌동(附和雷同) 보다는 차분한 대응 필요

-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對 이란 선제 공격
- 3월 1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사망. 이란 광범위한 보복 공격
- 3월 2일, 주요국 증시 장 초반 하락 회복 및 유가 급등세 진정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

지난 2월 28일 새벽(현지시각),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전복과 핵 프로그램의 영구적인 해체를 목표로 '에픽 퓨리(Epic Fury)'와 '사자의 포효(Roaring Lion)'이라는 명칭의 합동 급습을 단행하였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군사 시설을 타격하는 수준을 넘어, 이란의 핵심 지도부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성격이 짙다.

미국 중동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작전 개시 48시간 만에 이란 전역의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이 타격되었으며, 여기에는 미사일 발사대, 통신망, 지휘통제센터는 물론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의 해군 함정과 잠수함까지 포함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군이 이번 작전에서 처음으로 'LUCAS(Low-cost Unmanned Combat Attack System)'라고 불리는 저가형 무인 전투 체계를 대규모로 투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란의 샤헤드(Shahed) 드론과 유사한 자율 비행 무인기로, 정밀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이다.

3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디오 성명을 통해 "하메네이는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이번 공습이 이란 국민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습의 발단은 이란이 해외 미국 자산을 겨냥해 임박한 미사일 공격 징후를 보였다는 정보 당국의 판단에 따른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공습의 강도와 범위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이란의 체제 전환(Regime change)을 유도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12일 전쟁'과 다른 점

이는 지난해 6월 발생한 <12일 전쟁>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당시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는 이란의 핵 시설을 겨냥한 제한적 타격이었으나, 이번 작전은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 전면적 고강도 작전이라는 것이다. 특히 2월 28일 선제 공격으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을 지탱해 온 신권 통치 체제의 심장부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비롯한 그의 지도부를 상당수 제거했다는 점이 그 증거이다.

이란은 최고지도자 부재의 공백을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 지도부 위원회'가 출범해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이 하메네이의 카리스마와 절대 권력을 온전히 승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제한적인 공격 대신 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 걸프 연안 국가들에 대한 공격 수

위를 높이는 '비대칭 전략'을 취함으로써 미국을 향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 발발 이후 잠시 통행이 중단됐던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초크 포인트(choke point)'로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의 상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아부다비에 대한 집중 공세는 같은 지역 내 물류, 관광 허브를 타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이번 전쟁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

1) 에너지 시장: 가격 급등 및 서킷브레이커 발동

브렌트유와 WTI 원유 선물은 장 초반 10% 이상 폭등하며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어 개장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후 상승 폭은 4.5% 미만으로 다소 줄었으나,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 시 배럴당 18달러의 위험 프리미엄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OPEC+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하루 20만 6천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 증대를 결정했다. 호르무즈의 공급 차질 우려로 LNG 가격에 상당한 상승 위험이 제기됐으며,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로 인해 석탄 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식시장: 지역별·업종별 양극화

글로벌 증시는 장 초반 하락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요일(1일) 열린 사우디와 이집트 증시는 장 초반 5~6% 가까이 하락했으나 낙폭을 줄여 각각 2.2%, 2.5% 하락해 끝났다. 사우디 아람코는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3.4% 상승해 끝났다. 이스라엘과 카타르 증시는 휴장했으며, 쿠웨이트 증시는 2월 24일 장 마감 이후 계속 휴장 중이다.

2일 아시아 주요 증시가 열린 가운데,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가 1% 하락한 가운데, 일본 닛케이(-2%), 홍콩 항셱 기술 지수(-3%), 독일 DAX 선물(-1.7%) 등 주요국 지수가 이제 하락했지만, 개장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각 국가별로 군수 및 방위산업, 금 관련주, 석유·가스 채굴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항공 및 테크 주식들은 약세를 보이며 업종별 차별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3) 해운 및 물류: 운임 폭등과 경로 변경

유럽 항로 컨테이너 해운 지수가 15%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국제 유조선(VLCC) 운임은 약 6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 수준이 최고 단계로 격상되고 이란이 통행금지를 발표하면서, 머스크 등 주요 해운사들이 운항을 중단하거나 희망봉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안전자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몰리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25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장 중 3.928%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 금 가격은 장 초반 3% 넘게 급등하며 출발했으나 현재는 상승폭을 2% 수준으로

축소하며 온스당 5,350달러를 상회하는 중이다. 이는 지난 1월 말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 지명된 직후 나온 급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5) 변동성

CBOE(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선물 지수는 10% 넘게 급등해 출발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상승폭을 5% 미만으로 축소하며 투자 심리가 비교적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달러인덱스는 한 달 만에 98을 상회하였고,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15원 넘게 급등하면 1,455원을 기록 중이다. 최근 3거래일 동안 1,419원에서 1,455원까지 급등하며 높은 변동성을 기록 중이다.

국내 경제 및 증시 영향

부화뇌동(附和雷同) 보다는 차별한 대응 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약 4주 또는 그 이하가 걸릴 수 있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했다. 이는 장기전을 피하고 핵심 목표를 빠르게 타격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직접 언급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최대 압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란의 결사항전 의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란도 간접적 채널(오만)을 통한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은 “긴장 완화와 지역 안정 회복을 위한 모든 진지한 노력에 열려 있다”며 협상 재개를 위한 오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회피(Risk-off)’ 심리가 크겠지만, 불확실성 해소 이후의 ‘회복 탄력성(Recovery Resilienc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100조원 규모의 증시 안정 기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패닉에 빠지고, 두려움보다 빨리 회복된 사례가 많았다.

무엇보다 국내 증시의 ‘강력한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는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지난 1일 발표된 <2월 수출 동향>을 보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0.8% 급증한 25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통위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AI 이후 글로벌 경제의 구조는 ‘무형자산(Intangible)’에서 ‘유형자산(Tangible)’으로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구조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 많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선·방산(우주항공)·원자력·전력기기 등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 헬스케어·필수소비재 등 방어적 섹터와 스위스 프랑과 같은 안전 자산에 대한 균형 잡힌 분산투자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